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중학교까지는 고향에서 다니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대치로 나가, 서울에서 대학 졸업장을 받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았다. 튼튼한 직장을 잡고, 서른 살이 넘기 전에 결혼해 아이는 둘만 낳고, 월급의 일부를 차곡차곡 모아 삼십대 중반에 집 한 칸 장만하면 그럭저럭 중류층의 삶을 사는 줄 알았다.

내 삶은 이 땅의 산업화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1950년대 후반에 태어나 1980년대 중반 대학을 나오는 즉시 사회에 진출했다. 20대 후반에 결혼해 딸 하나를 낳고, 월급을 모아 1990년대 중반, 그러니까 결혼 10년만에 서울 변두리에 있는 25평형 아파트 한 채를 구했으니, 나는 '40대 평균인'에 해당한다. 물론 고향은 시골이고, 부모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고향집을 지키다 돌아가셨다.

이농향도나 핵가족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고 '압축 발전'이라고 불리는 가파른 산업화의 결과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은 늙으신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였다. 새벽에 전화를 받고 고향집으로 달려갈 때마다 산업화의 비인간성을 절감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산업화 정책이었는데도 국가는 잘난 체만 했다. 국가는 연간 수출 증가액이나 국민소득을 내세울 뿐, 가족의 해체에 대해서는 아랑곳



불자 세상보기

이문재 시인

'신고려장' 누구 책임인가

하지 않았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단절은 전적으로 그 부모와 자식의 문제로 환원되었다.

노인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다 들롱이 나자 아버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아들이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차마에 걸린 부모들이 유기되는 경우는 뉴스거리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단지 늙었다는 이유로 노인들이 유기되고 있는 것이다. 어디 노인들이야. 이혼이 급증하면서 버려지는 어린이를 또한 늘여나고 있다. 가족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도시화와 핵가족화는 산업화가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산업화의 성과를 구가하고 있는 국가는 도시화와 핵가족화의 그늘에 대해 배려를 하지 않고 있다. 버려지는 노인과 어린이는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의 깊고 큰 그늘이다. 노인을 버리는 자식, 어린이를 버리는 젊은 부모들을 탓하기는 쉽다. 하지만 비난은 비난에서 그칠 때가 많다. 비난이 비판으로, 비판이 대안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근원을 파헤치고 그것을 공유해야 한다.

도시화와 핵가족화를 추진해온 근본 동력은

경제 논리였다. 노인을 버리는 자식이나 어린 자식을 버리는 젊은 부모들을 패륜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부분 '돈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신(新)고려장'에 대해 나는 함부로 입을 열기가 힘들다. 신(新)고려장이 줄어들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모아 놓은 재산이 없는 노인, 직장에서 쫓겨난 중년, 세금조차 내기 어려운 자영업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 학비를 대기 힘든 청소년들... 세계화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예견했던 '20대 80의 사회'(직장을 가진 20%와 직장이 없는 80%로 이루어진 사회)가 눈앞에 있다. 빈부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고령화사회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국가가 나서야 한다. 가족의 회생을 요구한 국가가 노인과 어린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신고려장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최근 들어 노인분들의 발언권이 강해지고 있다. 이 참에 노인분들을 감히 당부하고자 한다.

부디 구시대적인 색깔은, 보복논쟁을 접고, 노인 복지 대책에 초점을 맞춰 주었으면 한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생애를 마감할 수 있는 제도 and 시설을 하루빨리 마련하라! 정부를 뒤달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 사회 전체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불자의 눈

불교계의 큰 별 승산 스님이 입적했다. 고봉 선사를 통해 전해 온 입제종의 법맥을 전해주신 조사로서 국제 포교에 다른 이가 이를 수 없는 큰 족적을 남기시더니, 그 발자국을 거두고는 그렇게 여여하게 가셨다. 세상에 많고 많은 눈 푸른 선지식이 있었지만 승산 스님처럼 그 깨달음의 빛은 세계에 펼쳐진 분도 드물기에, 우리는 그 큰 깨달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가신 뒤의 빈 자리를 크게 느낀다.

그러나 승산 스님의 가신 빈자리는 오히려 충만한 빈자리다. 정말 이름 그대로 눈푸른 남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음을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텅 빈 충만함을 이룬 승산 스님의 생애는 깨달음이 한갓 머물러 안주하는 자리 아님을 보여준 생생한 증언이요,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더 없이 높아진 모범이라 할 수 있다. 그분의 가르침을 이은 한 눈푸른 남자는 한국불교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오로지 한국에서만 큰소리치는 이유를 '한국 스님들은 너무 높아요!'라는 한마디로 갈파

승산 스님의 원력 이어가자

했다. 이 맑은 승산 스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외국인들 속으로 파고 들으셨던 그 족적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외국 생활의 밑바닥부터 체험하며,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가르침을 전했던 스승의 자취를 드러내 주는 이 한마디는 우리 한국불교의 국제화에 큰 시사점을 주는 말이다.

단순히 국제 포교에 한정된 말이 아니다. 승산 스님의 입적을 계기로 한국불교는 여러 가지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깨달았다고 외치는 데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임을 새겨야 한다. 그러한 사실을 승산 스님은 씩씩한 국제 포교를 통해서 입증한 것일 따름이다.

스님께서는 "다 걱정하지 마라! 만고광명(萬古光明)이 청산유수(靑山流水)니라"라는 송을 남기셨지만, 우리는 새김 없는 새김으로 스님의 큰 부족을 알아야 한다. 한국불교의 세계화가 물결을 타는 이 즈음을 맞아 보인선 원적 또한 우리들에게 말없는 부족을 내리신 것이 아닐까. 그 부족을 새삼 무겁게 만드는 마음으로 승산 스님의 깨달음과 업적을 기린다.

심대용(한국대 철학과 교수)

'연대' 민영

심민섭



이렇게 들었다 쉽게 사는 인생

"어떤 사람은 한정한 곳에서 스스로 악행을 하고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뉘우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마치 돼지가 항상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곳에 누워 있으면서 다른 돼지 앞에서 뽐내는 것과 같으니라." <중일아함경>

"감명깊게 읽은 책이 뭐니까?" "여성잡지요." 한 국제은행의 신입사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이 '아이없는 대답'의 주인공은 우수한 성격으로 합격해 모든 이들이 선호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한 유력인사로부터 "아들내미 합격시켜라"는 인사청탁을 받은 이 은행의 인사부장은, 면접도 보지 않고 집에 가버린 '귀한' 핏줄 자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면접 행차까지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난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위층 취업청탁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또 국제은행의 경우 신입직원 50%가 고위 공무원 출신 자제라는 소문, 이들 중 몇몇은 채용공고 가 나기 전부터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부모 잘 만만 덕에 난세(亂世)의 모진 바람에도 호사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까지 한다. 이들에겐 난관을 뚫고 목표에 끝나는 회열 따윈 중요치 않다. 오직 눈부신 결과만 갈구할 뿐이다.

문제는 이 같은 '쉽게 사는 인생'을 닮아가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수능 시험을 부정으로 치른 학생들에겐 다른 이유가 없었다. 명문대를 나와야 세상살이가 쉬워진다는데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부정행위가 잘 살 수 있는 한 방편이었다고,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지 몰랐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 강신재(취재부 기자)

동국대 이사회는 11월 29일 2005년 상반기 불교병원 개원을 앞둔 일산 병원의 명칭을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으로 결정했다. 병원이름에서



東大 일산병원 명칭

과 불교병원의 정체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각각 들어냈다.

위상·대외 친화력 감안한 것

그 동안 병원명칭과 관련해서는 2002년 개원준비 당시부터 수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중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내용은 불교계 기간병원이라는 정체성 문제와 지역주민이나 일반인들의 정서나 선호를 고려하여 '불교'라는 대외적 명칭을 사용할 것인가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객관적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병원에서는 2차례에 걸쳐 지역주민과 불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병원명칭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거치기도 했다. 설문결과 지역주민이나 일반인들의 경우 '동국대학교 병원'에 대한 선호가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불자들을 역시 중립적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운영 주체의 의지가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운영주체에서는 불교계 기간병원으로의 위상, 동국대학교 의료사업 부문 중심 병원으로의 위상, 고객 관점에서의 시장친화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다각도로 감안해 '동국대학교 한방병원'을 두기로 하는 안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사회 논의과정에서 현재 정관상 명칭인 '동국대학교 일산 불교병원'이라는 명칭을 '동국대학교 불교의료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관을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 등이 있어 일단 '동국대학교 병원·한방병원'으로 하자는 내용을 의결했다.

결론적으로 불교계 기간병원으로의 위상을 상징하는 '동국대 불교의료원'이라는 명칭결정은 차기의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불교병원의 명칭은 불교계 기간병원으로의 위상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외적인 친화도를 감안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병원명칭 결정에 있어서 불교병원의 정체성이 손상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김지형(동국대학교 병원 개원추진단 기획팀장)

정체성 잃을까 걱정된다

얼마 전 보도를 통해 일산불교병원의 명칭변경 소식을 전해 들었다. 불자들의 염원이던 불교계 종합병원의 개원을 위해 선뜻 모금에 참여했던 불자로서 여간 당혹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동국대 관계자들이 2002년 준공을 마쳤지만 자금난 등으로 문을 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누구보다 가슴아파했던 불자들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불교'라는 단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이라면 왜 일반인들이나 동국대 동창들이 아니라 불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모금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불경기에 시작해야 하는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경영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을 떠올릴 때마다 기독교인인 세브란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연세대 병원이나 가톨릭대의 성모병원과 견주게 되는 것은 비단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듯하다. 또 일산불교병원의 개원으로 불교계에서도 변듯한 종합병원이 생긴다며 기뻐했던 것이 었게 일이다. 주변의 스님들도, 몸이 아파도 불교 병원이 없어 기독교 관련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스님들의 이야기나, 기독교인들의 손을 잡고 임종을 맞은 수많은 불자들을 생각하며 일산불교병원 개원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른다.

물론 '불교'를 빼고 해서 그 병원이 불교적 이념을 구현하는 동국대학교의 병원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명칭을 통해 병원의 정체성과 이상이 표현된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병원이름에서 비록 불교는 빠졌지만 불교의 참뜻을 전하고 종교적 구원을 이루는 동국대 병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지홍 스님(서울 아산병원 지도법사)

신간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 '禪 너는 누구냐' 선원장 스님들의 사자후

2004년 2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대법회'에 초청된 선원장스님 11분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특별법문을 엮은 『禪 너는 누구냐』

선 수행 현장에서 실참실수하고 있는 조계종 선원장 스님들이 일러주는 '참선, 어떻게 할 것인가'



- 고우 스님(봉화 각화사 선탁)-선의 본질과 의미 ■ 무어 스님(봉화 죽서사 주지)-취두 드는 법
■ 대원 스님(공주 학림사 오동선원 조실)-선과 깨달음 ■ 함주 스님(보은 범주사 홍지선원장)-마음은 무엇인가
■ 현산 스님(구례 화엄사 선동선원장)-비우고 쉬는 공부의 선 ■ 영진 스님(前 조계종 기초선원장)-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
■ 지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선 수행의 요체 ■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선원장)-머무는 곳마다 주인되어 진실되게 사는 법
■ 현용 스님(美 버클리 육조사 주지)-한국선의 세계화와 생활선 ■ 도현 스님(하동 쌍계사 금당선원 선탁)-선 스스로 만드는 행복
■ 설경 스님(덕숭총림 수택사 수좌)-단박 깨침이란 무엇인가 ■ 특별법문 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경허·만공 선사의 가르침

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www.yosiamun.com 2004년 11월 30일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에시아문

